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당그린피 할인
 인터넷회원 가입 최고 3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88회 전국체육대회 이틀째인 9일 광주 염주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여자부 경기. 사대에 선 16개 시·도선수들이 금빛 과녁을 향해 조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김병희·노효성 나란히 2관왕

(사격 공기권총)

(사이클 여일반)

광주 기보배·이특영 양궁 '금'...전남 남 2인조 볼링 우수

광주체고 선·후배가 양궁에서 금빛과녁을 명중시키며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돌입한 광주의 초반 레이스에 힘을 불어넣었고 전남은 사이클 남자일반과 여자일반에서 금4개를 캐내며 초반 상승무드를 주도했다.

홍수남(광주체고 2)은 9일 양궁 여고부에서 광주에 첫 금을 선물했으며 '세계적 공사' 이특영(광주체고 3)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시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여자대학부 기보배(광주여대 2)도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정삼(광주체고3)은 체조 남고부 개인종합에서 금빛연기를 펼쳤고, 윤형욱(동신고 3)은 정구 남고 개인단식에서 역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검도 고등부에서 서석교가 선전을 펼치며 금메달로 힘을 보탤다. 하지만 광주대표 승마 최준상(삼성전자중·고)이 은메달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으며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는 2회전에서 탈락해 체면을 구겼다.

전남대표 김병희(기업은행)와 노효성(나주시청)은 각각 사격 여자일반 공기권총 개인전과 단체전, 사이

클 여자일반에서 2관왕에 올랐다.

볼링 남자일반 최석운·최복음(광양시청)이 2인조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병현(강진군청), 주현욱(강진군청)은 사이클 남자일반에서 금 질주를 펼쳤다. 광주와 전남은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이틀째인 이날 각각 금메달 9개, 11개를 획득하며 목표치를 위한 활찬 시동을 걸었다.

광주는 이날 현재 금 9개, 은 8개, 동 7개를 획득했고, 전남은 금 11개, 은 9개, 동 9개를 확보했다.

홍수남(광주체고 2)은 이날 광주 염주양궁장에서 열린 여고부 60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이특영(광주체고 3)도 60m에서 역시 금을 보탤다. 기보배도 여자일반부 60m에서 후배들 앞에서 금과녁을 명중시켰다.

광주의 여자 일반부 볼링 벨인퍼컴도 개인전에서 금·은을 싹쓸이 하며 종합우승을 향해 상쾌한 출발을 했다. 강혜은(벨인퍼컴)은 이날 ABC볼링장에서 열린 여자일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태권도에서는 최연호(상무)가 남자일반부 플라이급에서 경기 김정

훈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형주는 유도 남자 일반 66kg급 이하에서 금빛 메치기를 성공시켰다. 이외에 박윤희(동강대학 1)가 탁구 개인전 여자대학부에서 준결승에 올랐으며 김지훈(광주체고 3)은 레슬링 남고부 그레코로만형58kg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김병희(기업은행)는 광주남부대학에서 열린 여자일반 공기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을 싹쓸이 했으며 노효성(나주시청)은 사이클 여자일반 40km포인트 레이스와 24km포인트 레이스에서 우승 2관왕에 등극했다. 이에질세라 사이클 남자일반부에서 이병현과 주현욱(이상 강진군청)이 각각 1km개인독주와 40km포인트 레이스에서 금을 따냈다.

유도에서는 유광선(여수시청)이 남자일반 100kg급 이하에서 금을 메쳤고, 정다래(부영여고 1년)는 수영 여고 광영100m에서 1분10초96으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김승일(전남도청)이 체조 남자 일반부 개인종합에서 금빛 연기를 펼쳤다.

강성혁(함평골프고 1)은 레슬링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46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수영 남자일반부 조정모(고려대)도 자유형 1천5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박상엽(순천대)과 오성희(전남도청)는 각각 정구 남부대학부와 여자일반부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전남 히어로

“광주에 첫 금 기쁨요”

양궁 금·광주체고 홍수남



“광주에 첫 금 목표를 크게 뒀기 때문입니다. 남은 종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일 광주 염주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여고부 60m에서 금빛과녁을 명중시키며 광주 선수단에 첫 금을 안긴 홍수남(광주체고 2)은 “바람이 강해 기대하지 않았는데 금을 명중시켰다”고 담담히 소감을 밝혔다.

국가대표 이특영을 은메달로 밀어내고 금을 획득한 홍수남은 체육중 1년부터 3학년때까지 소년체전 대표로 활동했고, 지난해와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 24강까지 오르는 등 숨은 실력파.

올 6월 전국대통령기 단체 1등, 8월 화랑기 7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홍수남은 과감하게 빨리 쏘는 속사형이며 힘이 좋은 파워슈터. 리듬만 잘 타면 기록 작성도 가능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윤준찬 광주체고 감독은 “현재 경험이 없어 경험만 쌓으면 이특영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홍수남은 “체전에서 처음 금메달을 따게 돼 남은 경기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관왕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체전 징크스 깬어요”

사격 2관왕·전남대표 김병희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징크스를 깨 너무 기쁩니다”

9일 광주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사격 여자일반부 공기권총에서 2관왕 총성을 울린 전남대표 김병희(기업은행)는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격 한 것이 금메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나주중학교-나주여자상업고등학교-동신대를 졸업하고 상무를 거쳐 기업은행 소속인 김 선수는 중학교 1학년 클럽활동시간에 우연히 사격을 접한 뒤 소질을 발휘했다. 그동안 전국대회에서 1~2위를 다투는 등 정상의 기량을 자랑했다. 하지만 10여년동안 유독 전국체전에서는 금 총성을 울리지 못했다.

3년전 동메달을 획득한 것이 전국체전 최고 성적. 2005년부터 태극마크를 달고 전국최고의 선수로 각광받았지만 여전히 전국체전 금은 보이지 않았다.

김 선수는 이번 체전에는 반드시 징크스를 깨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특히 국가대표로서 자존심을 살리고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위해서도 꼭 징크스를 탈출해야만 했다.

김 선수는 오는 14일부터 쿠웨이트 아시아선수권을 위해 곧바로 청주에서 합숙훈련에 돌입한다.

/글: 사진: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판승 사나이’ 이원희 관중 물이

■ 태권도 전자호구 처음 도입 해보니

아! 아쉽다...패배에 격려 박수

선수들 “재미없고 혼란스러워”

9일 유도경기가 펼쳐진 광주시 북구 오치동 살레시오 경기장은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27·KRA)를 보기 위해 찾은 관중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오후 1시 40분께 도복을 입은 이원희의 모습이 보이자 경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발목 수술 이후 처음으로 경기에 나서서 만큼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부전승으로 81kg급 8강전에 오른 이원희의 상대는 경남도청의 김철규(27). 이원희의 주 체급이 73kg이니 만큼 두 선수의 맞대결은 처음이다.

경기 시간을 1분 20여 초를 앞두고 두 선수의 작은 몸짓에도 탄성이 흘러나오던 경기장이 또다시 술렁였다. 김철규에게 발목을 잡힌 이원희가 효과를 허용한 것이다. 봉대를 감은 오른쪽 발목을 절고 있는 이원희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경기 종료 5초를 남기고 잠시 경기가 중단되자 관중은 ‘한판’의 기적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기를 마친 이원희는 기자에게 담담한 표정으로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경기 중간에 퇴장을 시도하다가 발목을 빼앗겨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 솔직히 아쉽기는 합니다”

시합 직전 부상을 입었던 우태규 광주시유도협회 전문이사의 만류에도 출전을 강행했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

컨디션을 묻는 질문에 “컨디션이 평소의 28%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유의 여유를 보인 이원희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올림픽 대표팀 선발전을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이원희 선수만큼 눈길을 끈 선수는 김철규였다.

김 선수는 “첫 맞대결이고 상대가 상대인 만큼 부담도 컸지만 이원희 선수의 몸이 좋지 않아서 기대도 했다”며 “급격히 선수의 체력이 떨어져서 30초를 넘겨 두고 승리를 자신했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이날 김철규는 은메달을 따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태권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전자호구’가 광주 전국체전에서 처음 ‘실전’에 쓰였으나 선수단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선수들은 이번 체전부터 작은 자석 센서가 촘촘히 붙은 전자호구를 착용하고 ‘센싱클러브’ 슈즈를 신고 경기에 임하게 된다. (사진)

공식대회에 처음 도입된 태권도의 전자호구 시스템이다. 하지만 9일 광주 풍암동 다목적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과 임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광주대표 최유진 선수와 충북대표 김현정 선수가 맞붙어 팽팽한 접전을 펼치다 경기 끝날 무렵 최유진 선수가 앞차기를 성공시켰다. 관중이던 관계자 모두가 최선수의 승리로 생각했으나 센서는 반응하지 않았고, 충북 김이진 선수가 넘어지면서 최유진을 가려한 것이 포인트에 올라 광주선수가 탈락했다. 광주시 태권도 관계자들의 황의가 잇따랐으나 집행부는 묵묵부답.

여자부는 65~75레벨, 남자는 75~90레벨의 충격을 가하면서 전자호구의 접촉 센서와 충격센서가 반응토록 해야만 득점이 된다. 심판들은 안면 공격 점수만 매기고 감점, 경고 등만 체크하면 된다.

하지만 전자호구를 처음 쓴 선수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여고부 플라이급 최윤준(진안제일고)은 “처음 착용하니까 불편했는데 조금씩 적응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대부 황인하(인천광역시)는 “재미없고, 정확하게 찾는데 점수가 안올라가고 슬쩍 맨 것 같은데 점수가 올라가는 등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남대부 핀급 안용철(계명대)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다. 정확하게 앞면만 차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경기 꼭! 보세요

박태환 광주서 첫 금빛 역영 기대

염주수영장

‘제2 장미란’ 이어라 3관왕 도전

정광고체육관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서울)이 생애 처음으로 빛고를 광주의 물맛을 보게된다.

광주서 첫 방문한 박태환은 10일 염주수영장에서 열리는 제 88회 전국체전 남고부 계영 800m에 출전해 마지막 주자로 터치패드를 찍는다.

릴레이 수영경기로 4명이 200m씩 나눠 헤엄치는 계영은 다른 주자들의 실력도 중요한 종목. 다행히 서울팀이 에이스급으로 구성돼 있어 이날 박태환의 첫 금빛역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환은 당초 단거리 2종목만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10일 남고부 계영 800m를 시작으로, 11일 자유형 200m, 12일 계영 400m, 13일 자유형 100m, 14일 혼계영 400m에 차례로 출전한다. 세계적 기량을 지닌 만큼 박태환의 5관왕 달성도 유력시 되고

있다. 염주양궁장에선 신공들의 ‘금빛 과녁 맞추기’가 펼쳐진다.

2004년 충북체전 MVP 박성현(진북도청·전북)과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 임동현(한국체대·충북)이 남녀 대표 공사로 나서 과녁을 정조준한다. 30m와 50m 사대에서 세계기록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이 밖에 ‘포스트 장미란’으로 떠오른 17세 소녀 역사 이어라(광주체고·광주)는 10일 오후 4시부터 정광고 체육관에서 열리는 역도 여고부 75kg급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또 오전 10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을 찾아가면 보디빌딩 남고부와 남자 일반부의 멋진 금빛 근육 대결을 감상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